

가정관리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의 분석 : Schlater와 Sontag의 2차원 가치측정모델의 적용

A Classification of Studies on Human Values in Home Management : With a Two-Dimensional Model for Measurement, as Proposed by Schlater & Sontag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洪 恩 實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Eun-Sil, Hong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 黃 德 旬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Duck-Soon, Hwang

본 연구는 Schlater와 Sontag가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시한 가치측정 모델에 의하여 국내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분류하였다. 2차원의 매트릭스로 구성된 이 모델은 가치연구를 가치조사의 초점에 따라 내용과 구조,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에 따라 3가지 측정접근법 즉, 피험자 단독,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모델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부터 1995년 13권 1호까지와 대한가정학회지 1983년 21권 1호부터 1995년 33권 1호까지에 수록된 논문중 인간의 가치를 연구한 논문과 몇편의 학위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측정접근법상 피험자 단독 접근법이나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가치연구방법으로 인간생태학적 접근법인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 접근법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가치측정패턴에서만 특히 부족한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 또한 요구되어진다.

I. 서 론

철학의 주요 관심사인 가치는 이제 가정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경영관리 등의 여러 기초·응용 학문 분야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래 철학에서 시작되어 온 가치 연구는 주로 이론적, 관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후 경험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어

사회 과학에서 중요한 연구영역을 점유해 왔다.

가치 연구는 연구의 초점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두느냐 아니면 대상(an object)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Ro-keach, 1973 : 4), 가정관리학에서는 대상쪽에서 접근한 가치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이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또한 W.W. Mckee (1955)는 가정관리에서 중요한 가치로 계획, 기술,

질서, 효율성과 같은 수단적 가치를, 가정관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궁극적 가치)로 인간의 안녕과 건강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라는 하나의 대상이 지니는 또는 대상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를 연구한 것이다. 이처럼 대상에 포함된 가치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Rokeach (1973 : 4)는 가치연구에 대한 이 두가지 접근법에 대한 선행연구 즉, 가치문제를 대상쪽에서 접근한 연구와 인간쪽에서 접근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 대상쪽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회분석에 보다 더 유용하다는 가정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회과학에 걸쳐, 특히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를 원하는 행동과학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주체적(主體的)인 행동을 다루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가정관리학은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을 단순한 객체로서가 아니라, 일개의 주체로서의 가족 개개인의 계발(啓發)과 가족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행동의 집합체로서 관리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므로(김외숙·이기영·최은숙, 1993 : 34-35), 가족원의 성장에 있어서나 관리행동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가치연구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정학 분야에서 가치연구는 가정학 발달 초기인, 1901년 Lake Placid Conference에서 C.L. Hunt가 "Revaluations"이라는 논문에서 가치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후 생활속에서 가치이념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후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특히 관리의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 78). 하지만 가치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그 연구 방법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 가치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치는 눈으로 관찰되지도, 직접 평가될 수도, 계산될 수도 없으나, 개념적 용어들을 명료화하고 정의하는 과정인 개념화와, 관찰하기에 적절한 현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조작화로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조작화가 가능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고, 경험적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지시대상(referents)을 확인하는 것은 가치 연구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Schlater & Sontag, 1994 : 5).

최근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가치연구는 생태학적 접근에 발맞추어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바람직한 개념 즉 좋고, 옳고, 가치있는 것으로써 의사결정과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생태학적 이론과 실제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며 연구 주제가 된다. 또한 인간생태학은 적절한 의, 식, 주의 공급과 자원 관리와 같은 복잡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한 해결책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과 가족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든 하위문화든간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내에서의 가치지향과 관련되어 있다(Bubolz & Sontag, 1993). 인간의 행동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치조사는 가치측정에 대한 타당성 있는 모델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Schlater와 Sontag(1994)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가치 측정모델을 구성하여 가치측정에 있어 체계적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는 Schlater와 Sontag(1994)의 2차원의 가치측정모델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국내 가정관리학에서 수행되어 온 인간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을 선정하여, 가치조사 방법에 있어 그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내용과 구조, 과정으로 분류하고,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에 따른 3가지 측정접근법 즉, 피험자 단독,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가치측정모델이 국내 가정관리학의 여러 분야의 가치 연구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 현 가치 연구의 상황을 진단하여 미래의 가치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가정학에서의 가치 연구동향이 주로 가족분야에서 특정 대상자들의 가족의식이나 생활관, 가정경영관 등을 통한 가치묘사로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분야의 가치 연구를 가정관리 체계이론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리의 동기요소로서 가치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의 가치 연구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측정에 따른 연구결과보다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의 개념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가치는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적용범위가 광범위한만큼 개념 정의도 다양하다. 그 중 사회학자 C. Kluckhohn이 내린 가치 정의는 널리 인정된 것으로, 그는 가치를 "행동의 목표,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나 집단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관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Schwartz와 Bilsky(1987)는 가치에 대한 연구문헌들에서의 가치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고 하였다. 가치는 ① 특정 상황을 초월하여 ② 행동과 결과의 선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③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배열되는 ④ 바람직한 궁극적 상태(end-state)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⑤ 개념이나 신념이다. 이들 5가지 특성은 인간 가치의 표면적인 속성을 묘사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가치 연구자들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가 심층화하고 구체화함에 따라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의 다차원성 때문에 더욱 특정화시키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종래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치의 개념적 특성들을 요약한다면 ①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재구성된 추상성, ② 특정 상황을 초월하는 궁극적 인지로서의 특성, ③ 중요한 가치의 체계적 통합성 및 서열성, ④ 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Rokeach, 1973; Schwartz & Bilsky, 1987, 1990; 임희섭, 1980). 따라서 가치는 동기의 한 측면으로서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판단작용을 수행하고, 지속적이며 궁극적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면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심리적 제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는 개념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임희섭, 1980).

2. 가치측정 방법

널리 사용되고 있는 Rokeach(1973)의 고전적 가

치조사는 미리 결정된 가치항목셀을 가지고 어떠한 관련 대상없이 피험자가 지닌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이다. '행복과 자유'와 같은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와 '야망적인 또는 책임감 있는'과 같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로 나눈 다음 각각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18개 항목으로 제시하여 피험자에게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순서를 정하게 했다. 이로써 18개의 궁극적 가치와 18개의 도구적 가치의 위계적 순서가 정해진다. 개인적 가치체계내에서 가치요소들이 엄격하게 등급매겨지는 측정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Schlater & Sontag, 1994). 이들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을지라도, 엄격한 위계를 형성하지는 않으며, 같은 수준에서 여러 가치를 갖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Rokeach의 가치조사는 융통성 있는 도구임이 증명되었으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chwartz와 Bilsky(1987)는 Rokeach의 순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18항목을 자신의 삶에 있어 지침원리로써의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 순서로 나열하게 한 다음, 인접한 가치와 비교하여 윗 순위의 가치가 바로 아래 순위의 가치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7점 척도로 나타내게 하였다. 그들은 보편적 요구(universal requirements) - 생물학적 요구, 상호작용 요구, 사회적 요구 - 에 기초한 일반적인 유형의 가치이론을 구성하였다. 이들 요구로부터 그들은 8가지 가치의 동기영역[향유(enjoyment), 안전(security), 사회적 권력(social power), 성취(achievement), 자기 지향(self-direction), 친사회(prosocial), 제한적 순응(restrictive conformity), 그리고 성숙(maturity)]을 이끌어 냈다. 최소 공간분석(smallest space analysis)을 통해 가치들의 개념적 유사성에 기초한 다차원적 공간의 점으로 가치를 나타내게 하였다. 보편적인 근원(common origin)에서 나온 8개의 쉐기모 양으로 나타나는 순환적 배치(circular arrangement)로 표현되며, 각 부분은 단지 한가지 내용 영역의 가치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향유(enjoyment)영역은 하나의 군집으로써 안락한 생활, 행복, 유쾌함, 즐거움을 나타낸다. 이들은 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 5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문화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5국가 중 4국가에서 내용 영역과 구조적 관계에서 유사성이 나타났다(Schwartz & Bilsky, 1990).

Rokeach(1967)의 가치조사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전적으로 동의한다'에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5점 내지 7점 척도로 응답토록 하여 소비자들을 같거나 유사한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갖는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몇 개의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또 다른 잘 알려진 가치연구 중 하나인 Allport, Vernon과 Lindzey(1960)의 연구는 가치내용을 이론적, 경제적, 미학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부분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우세를 측정하였다. 의류학분야에서의 복 만족도, 과시성, 유행, 의상흥미, 의복선택요인 등의 변수와 가치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llport, Vernon과 Lindzey의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김광경, 1982; 신귀희, 1980; 이선재, 1983), 그 밖에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만족도와 가치관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김연화·이정우, 1987)도 있다.

인간의 지속적인 행동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지향 형태도 가치연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지향의 개념을 가치개념과 구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Kluckhohn와 Strodtbeck(1961: 4-29)의 정의에 따르면 "가치지향은 복합적이지만 일정하게 유형화된 원리로서 평가과정의 3가지 요소(인지적, 정의적, 지향적)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끊임없는 흐름에 순서를 매기고 방향을 지운다"고 하였다. 그들은 가치지향개념 형성에서 평가과정 전체의 지향적 측면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가치지향을 인간의 본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관, 인간활동양식, 사회적 관계양식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며 각 영역의 가치지향은 상호독립적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이 다섯영역 중 일부분의 가치지향을 측정한 연구들(윤정혜, 1986; 홍은실, 1990)도 있다.

Firebaugh, Weaver와 Warren(1975a)은 직업과 교육에 대한 4가지 가치지향(관념성-현실성, 능동성-수동성, 민주성-권위성, 집단지향성-개인지향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총 40문항을 만들어 신뢰도를 검증하여 28문항의 척도를 완성하였다. 그 검증된 척도를 가지고 Firebaugh, Woodward와 Daly(1975b)는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저소득층 주부의 가치지향을 측정하여 다른 변수(인종, 거주지, 교육, 나이, 가족 크기, 결혼지속년수, 거주형태 등)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김경신(1987, 1989)도 Firebaugh등(1975a)의 척도를 우리말로 해석하여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에 가치전달을 연구하였다.

Eigsti(1973)는 Brim등(1962)의 가치지향척도로부터 가치지향을 운명지향-통제지향의 연결개념으로 보아 가치를 측정하였고, 조미환과 임정빈(1992)도 이를 기초로 운명지향과 통제지향의 가치지향을 측정하였다.

3. Schlater와 Sontag의 가치측정 모델

Schlater와 Sontag(1994)는 인간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접근법을 고찰하여, 인간이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가치를 연구하는 방법론적 접근법 즉,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2차원의 가치측정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에서 선택된 2개의 연구파라메타는 가치조사의 초점(내용, 구조, 과정)과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피험자 단독,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이며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1) 가치조사의 초점 차원

Schlater와 Sontag(1994)는 가치를 조사함에 있어 무엇을 다루느냐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인의 가치 "보유(holding)"에 초점이 있는 연구는 내용(content)으로, 위계나 군집, 영역을 배치함으로 가치들 간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둔 것은 구조(structure)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 개발과

Focus	Subject-Object Inclusion		
	Subject-only	Subject-Object Reactive	Subject-Object Interactive
Content			
Structure			
Process			

그림 1. Human values measurement model.

기존 가치의 중재, 명료화, 변화와 관련한 인간-환경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구는 과정(process)으로 분류된다.

내용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이름이 붙여진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특정 가치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설명을 나열한다. 이것에 비해 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가치들 간의 위치를 정하거나 공간적 관계를 그린 군집, 유형, 위계의 형태를 지닌 연구들이다. 구조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연구는 가치구조 뿐 아니라 가치내용 또한 포함한다.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으며, 과정의 개념은 복잡하고 측정하기가 어렵다. Schlater와 Sontag(1994)는 “과정”이란 용어를 가치형성과 계발, 명료화, 가치의 전달, 변화, 그리고 가치평가까지 적용시켰으며, 대부분의 과정에 초점을 둔 가치연구는 가치 명료화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2)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 차원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 하나의 실체로서의 대상에 대해 또는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해 반응하여, 가치는 하나의 넓은 의미의 대상이 갖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Schlater와 Sontag(1994)는 개념적으로 가치대상과 피험자가 분리되어 있으며, 가치는 평가된 가치대상내에 있기보다 오히려 평가하는 피험자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가치를 표현하는 피험자들을 중심 가치대상으로부터 차단시켰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생태학적 관점으로부터 피험자와 가치대상간(또는 인간시스템과 그의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연구설계에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는 3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1) 피험자 단독 접근

이 접근법은 어떠한 맥락상의 대상이 없이 피험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Rokeach(1973)의 연구가 전형적인 것이다. 많은 연구가 피험자-단독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가치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 방식에 대해 Schlater와 Sontag(1994)는 가치의 핵심이 되는 대상을 제외시

키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가치는 대상과 분리되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상의 대상없이 특정 가치에 대해 피험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를 낳을 수 있으며 가치의 중요한 차원을 흐리게 하고, 미흡한 결론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수많은 사회과학에서 가치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가치요소의 일관성과 통합성, 그리고 특정 상황을 초월하는 궁극적 인지로서의 특성과 지속성 등의 가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개인의 특정 대상이 아닌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

이 접근법은 일방적 상호작용(one-way interaction)과 관련되어 있으며 피험자에게 미리 결정된 가치에 따라 또는 피험자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가치대상에 대한 판단을 묻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러 생활영역에 따른 가치기준을 평가하게 하는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이 접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Allport-Vernon-Lindzey(196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3)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

가치대상의 속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평가할 뿐 아니라 가치보유의 결과로서 대상의 속성 그 자체에 대한 인간의 행동 결과까지 측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가치 연구에서 가장 발달되지 않았으나 성과가 기대되는 접근방법이다. 또한 “자원의 유용성에 의해 가치변화가 촉진되며, 자원사용에 대한 결정은 역동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 체계 정리에 맞는 방법으로, 가치평가에 대한 이러한 전체론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더욱 가능하게 하며 인간과 그 환경간의 가치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Schlater와 Sontag(1994)는 설명하였다.

이렇게 가치 연구의 초점과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 차원으로 구성된 모델을 가지고, 그들은 기존 가치연구들이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방법론적 접근법에 따라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 단독과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 그리고 내용과 구조 초점의 연구가 우세함을 발견하였으며,

현재 가치연구의 주된 측정방법은 인간생태학적 맥락을 포함한 것이 아니어서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II.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도구로서 Schlater와 Sontag(1994)의 모델은, 그 모델이 담고 있는 차원과 개념이 가정학/인간생태학 분야와 기타 사회과학내의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도 연구설계를 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유용하다.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가치지식에 적합한 조사연구방법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Sontag와 Schlater(1995)는 2차원의 인간가치 측정모델을 생활의 한 영역인 의류분야의 가치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주거나 가족, 가사노동 등의 많은 다른 영역에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창간호부터 1995년 13권 1호까지)와 동기간의 대한가정학회지(1983년 21권 1호부터 1995년 33권 1호까지)에 수록된 논문중 가정관리학에서 인간의 가치를 연구한 논문 20편과 4편의 학위논문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가정관리학 영역이란 한국가정관리

학회지에 수록된 모든 연구논문과 대한가정학회지의 경우는 의류학, 식품영양학, 가정교육학을 제외한 가정관리, 경제, 소비자, 가족, 아동, 주거의 연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가치를 중점으로 다룬 연구의 수가 적어서 가치가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 사용된 연구까지 포함시켰다.

IV. 분석 결과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가치 연구들을 조사초점(즉, 내용, 구조, 과정)과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즉 피험자 단독,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1). 한 연구에서 한가지 초점 이상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는 보다 우세한 초점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사의 초점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피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내용만을 측정했기이다. 단지 3개의 연구만이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였고 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는 한편이었다. 그리고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 차원에서는 모든 연구가 피험자 단독 접근법과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이였다.

이것은 Schlater와 Sontag(1994)의 연구 분류와 비

표 1 가치 연구의 분류

초 점	피험자-가치대상 포함관계		
	피험자 단독 접근법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
내 용	윤정혜(1986) 김연화, 이정우(1987) 임정빈(1988) 임 정, 이기춘(1988) 홍은실(1990) 조미환, 임정빈(1991) 엄하정(1993)	서병숙, 김윤(1983) 장근화(1984) 박미금, 장명옥(1985) 박성연(1986) 김미숙, 김명자(1988) 이정우, 오경희(1988) 옥선화(1986,1989,1990) 김일명, 김명자(1989) 김송애, 조병은(1991) 안옥희, 박인전(1993) 조은정, 이기춘(1994)	
구 조		주영애, 이길표(1987)	
과 정		김경신(1987,1989) 현은민(1994)	

교할 수 있다. 그들은 가치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연구와 가치의 고전적 연구들을 자신들의 2차원적 측정모델에 의해 분류하여,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과 내용, 구조초점이 우세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분석에서는 피험자-단독접근법이면서 과정초점의 연구와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이면서 내용초점의 연구, 이 두 영역에만 포함되는 연구가 없었다. 전자의 경우 대상을 포함시키지 않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가치연구들은 9영역중 4영역으로만 분류되었으며(피험자 단독접근법이면서 내용초점,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이면서 내용초점, 구조초점, 과정초점),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을 시도한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이는 가치 연구가 다양한 접근법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의류학에서 실시되어온 가치연구들을 똑같은 측정모델로 분류한 Sontag와 Schlater(1995)의 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다. 의류학에서의 대부분의 가치 연구는 조사초점에 있어서는 내용이나 구조초점이었으며, 피험자 단독접근과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이었다. 그러나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인 연구와 과정에 초점을 둔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의 연구가 몇편 있었으며, 그래서 9개의 분류영역중 6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가치측정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이면서 내용에 초점을 둔 영역에 속하였다. 가정관리(또는 가정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을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로 나누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조사하였으며(서병숙과 김 윤, 1983; 박미금과 장명옥, 1985; 이정우와 오경희, 1988; 김일명과 김명자, 1989; 안옥희와 박인전, 1993), 조사대상자는 주로 주부이며 이밖에 대학생, 기성세대가 있다.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옥선화, 1986, 1989, 1990; 김송애와 조병은, 1991)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박성연, 1986), 주거가치(조은정과 이기춘, 1994), 이혼에 대한 가치관(김미숙과 김명자, 1990), 남녀 교교생의 가치관(이성관, 인생관, 여가관,

대화관, 학업관, 처세관, 직업관, 사회관)을 조사한 것(장근화, 1984)이 있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피험자 단독접근법이면서 내용에 초점을 둔 영역에 속하였다. 이 영역에는 가치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가치지향 개념으로 가치를 측정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들은 Kluckhohn과 Strodtbeck(1961)와 Brim등(1962), Bengston과 Lovejoy(1973), Strumpel(1973), Fifebaugh등(1975a, 1975b)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시간지향, 활동성지향, 인간-자연지향, 인본/물질주의 지향, 집합/개인주의 지향, 운명/통제 지향등을 특정 관련대상 없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어떠한 가치지향을 보이는가를 조사하여 종속변수의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윤정혜, 1986; 임정빈, 1988; 임정과 이기춘, 1988; 홍은실, 1990; 조미환과 임정빈, 1991). 그리고 6영역의 Allport, Vernon과 Lindzey(1960)의 가치측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가치관과 가사노동의 태도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김연화와 이정우, 1987)와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태주의 가치와 물질주의 가치, 편의주의 가치를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있다(엄하정, 1993).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모두 3편이다. 김경신(1987, 1989)은 교육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에 전달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Firebaugh등(1975a)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두 집단간의 가치의 유사성, 즉 상관도를 가지고 가치전달을 연구하였다. 또한 방위가족에서 인지한 어머니의 가치와 자신의 생식가족에서 자녀에게 선택한 가치간에 전달 및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한 것(현은민, 1994)이 있다. 과정연구가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가치의 계발과 변화 등을 다루는데 있다면, 이들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과정을 연구한 것은 아니나 과정의 개념은 복잡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가치의 유사성을 가치전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기 때문 이들 연구는 과정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가치의 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로 주영애와 이길표(1987)는 8가지 측면의 주거에 대한 가치관과 중요

시하는 순위를 매기게 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주거가치의 구조를 밝혔다.

V. 결론 및 제언

가정관리학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수행되어온 인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Schlater와 Sontag의 2차원의 가치측정모델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단순히 피험자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만을 측정하는 내용 초점(83.3%)이었으며, 모든 연구가 피험자 단독 접근이나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을 한 것이었다. 즉 피험자 단독접근이면서 내용 초점연구(29.2%)와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이면서 내용 초점연구(54.2%)가 가치측정에 있어 우세하였다. 그리고 3편의 연구가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이면서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가치를 측정하였으며, 단지 한 연구만이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이면서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2차원(3×3)의 측정모델에 따른 9영역분류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치연구들은 4영역으로만 분류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결론과 그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Schlater와 Sontag의 가치측정모델에서 조사초점에서는 내용에서 과정쪽으로 갈수록, 접근에서는 피험자 단독접근보다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이 더 측정수준이 높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방법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국의 선행연구(Schlater & Sontag, 1994; Sontag & Schlater, 1995)에서도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보다는 피험자 단독과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과정초점보다는 내용과 구조초점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초점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으로 보아 보다 높은 수준의 측정인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이나 과정초점으로 연구 방향이 진행되기에는 너무 미흡하여, 가치연구가 초보상태임을 진단할 수 있다. 피험자 단독접근법은 인간생태학 이론의 기본가정이나 정리와 맞지가 않으며 (Bubolz & Sontag, 1993), 피험자-가치대상 반응적

접근법은 일방적 상호작용(one-way interaction)과 관련되어 있어 어느정도 인간생태학에 맞는 방법일 지라도 양방적 상호작용이나 전체론적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연구들은 인간생태학적 맥락에서 벗어난 가치측정이었다. 이에 반해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법은 가치평가에 있어 전체론적 관점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더욱 가능하게 하며, 인간과 그 환경간의 가치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접근법으로 기대된다(Schlater & Sontag, 1994). 또한 가치획득이나 세대간의 가치전달, 가치변화, 명료화 등과 같은 과정연구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대되어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연구는 피험자-가치대상차원에서는 피험자-가치대상 상호작용적 접근을, 조사초점에 있어서는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대부분 내용초점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1) 김광경(1982). 가치관과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유행 및 한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2), 53-63.
- 2) 김의숙·이기영·최은숙(1993). 가정관리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3) 신귀희(1980). 가치관과 의상홍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4) 이선재(1983). 한국 여성의 의복선택요인과 가치관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연구 22.
- 5) 임희섭(1980).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정음사.
- 6) Bubolz, M.M. & Sontag, M.S.(1993). Human ecology theory. In P.G. Boss, W.J. Doherty, R. LaRossa, W.R. Schumm & S.K. Steinmetz(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 (pp.419-448) New York : Plenum.
- 7) Eigsti, M.A.(1973). Interrelationships of value orientation, decision-making mode and decision-implementing style of selected low socio-economic status negro homemaker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 Michigan State University.
- 8) Firebaugh, F.M., Weaver, C.R. & Warren, R.D.(1975 a). Reliability of value orientation sc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74-89.
 - 9) Firebaugh, F.M., Woodward, J.C. and Daly, R.T.(1975 b). Homemakers' orientations to education and job.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90-102.
 - 10) Gross, I.H., Crandall, E.W. and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4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11)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Glencoe, IL : Free Press.
 - 12) Schlater, J.D. & Sontag, M.S.(1994). Toward the measurement of human valu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1), 1-10.
 - 13) Schwartz, S.H. & Bilsky, W.(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14) Schwartz, S.H. & Bilsky, W.(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15) Sontag, M.S. & Schlater, J.D.(1995). Clothing and human values : A two-dimensional model for measuremen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1-10.
 - 16) William W. Mckee(1969). "Values in home management", Values and Decision Making. Six Historical Papers in Home Management 1901-1960.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분석 논문〉
- 1) 김경신(1987).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치관과 가치전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3), 95-106.
 - 2) _____(1989).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3) 김미숙·김명자(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4)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5) 김연화·이정우(1987).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231-251.
 - 6) 김일명·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 7) 박미금·장명옥(1985).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13.
 - 8)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 9) 서병숙·김 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27-138.
 - 10) 안옥희·박인전(1993).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가사노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4), 1-21.
 - 11)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69-181.
 - 12) 옥선화(1986). 가족주의 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143-153.
 - 13) _____(1989).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14) _____(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61-170.
 - 15) 윤정혜(1986).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 16) 이정우·오경희(1988).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 논문집 2, 27-57.
 - 17) 임 정·이기춘(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67-82.
 - 18)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19) 장근화(1984). 남녀고교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20.
 - 20) 조미환·임정빈(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29(1), 169-184.
 - 21) 조은정·이기춘(1994).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가치 : 신혼주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32-144.
 - 22) 주영애·이길표(1987). 주거에 관한 가치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69-84.
 - 23) 현은민(1994).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전달 및 가치 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4-35.
 - 24) 홍은실(1990). 주부의 가치지향과 의사결정양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